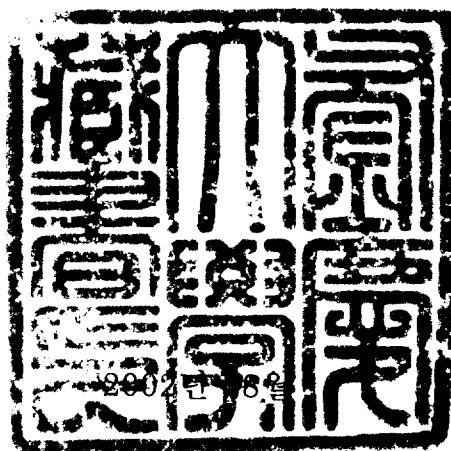


문학석사 학위논문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단절의 주제 연구

지도교수 윤 희 수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 어 영 문 학 과

서 채 량

서채량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6월 29일

주 심 문학박사

엄 광 응



위 원 문학박사

손 달 례



위 원 문학박사

윤 희 수



목 차

I.	서 론	1
II.	본 론	7
	1. 단절의 의미	7
	2. 단절의 양상	21
	(1)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21
	(2)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38
	3. 단절을 넘어선 생존의 모색	52
III.	결 론	65
	참고문헌	67
	영문초록	69

I. 서론

본 논문은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의 시에 나타난 “단절”의 주제에 대한 탐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스트와 낭만주의 자연 시인인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의 자연관을 비교하여 프로스트의 자연시가 가지는 현대성을 규명하고, 그의 시 속에서 “단절”이라는 현대적 주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살펴 본 다음, 이러한 단절의 상황을 수용하고 삶을 모색하는 그의 시적 노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흔히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취급한 대표적 시인으로 지나간 시대의 시인들 중에서는 워즈워드를, 현대 시인 중에서는 프로스트를 꼽는다. 하지만 두 시인간에 존재하는 100여 년이란 시간만큼 그들이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확실한 간격이 존재한다.

물론 프로스트의 기본적인 입장을 낭만적이라 보고 그가 낭만주의적 전통을 수정하였을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는 하다. 그 한 예로 그리피스(Clark Griffith)는 인간이 자연과 융화하고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인간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종래와 달리 자연이 무감정하고 불투명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20세기의 어두운 전망이 프로스트의 시 속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22). 이와 같은 관점은 프로스트의 현대적인 면모를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자연을 인간에 앞세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낭만주의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워즈워드와 프로스트의 구체적인 차이는 여러 면에서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내용의

측면에서 워즈워드가 자연과의 융합, 친화를 통하여 우주 속의 신비한 영(靈)을 접하고 법열과도 같은 무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자연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프로스트는 자연과의 융합이 아닌 단절에 시각을 집중시켜 인간의 삶과 평행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세계로서의 자연을 그림으로써 인간을 자연과 대등한 위치로 올려놓는다. 프로스트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다.

... 자연 시인으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사는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것이었다. 실제 의미에서 그는 한 사람의 철학 시인이었다. 자연은 단순히 그에게 끊임없는 은유만을 제공해 주었을 뿐이다. (Barry 127-128)

이렇듯 워즈워드가 친화, 동화를 강조하는 자연과의 관계에 관념적인 인간을 등장시킴으로써 자연과의 정신적인 결속을 이루어낸 반면, 프로스트는 객관적인 눈으로 자연을 응시하고 여과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기쁨, 희망, 두려움, 슬픔 등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실적인 인간을 구현해 냄으로써 우호적이었던 자연과의 유대가 단절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시각과 사실성이야말로 워즈워드를 위시한 낭만주의 시인들로부터 19세기의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논하는 여러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현대성을 그에게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프로스트가 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1920,

30년대는 1922년 “경이의 해”(annus mirabilis)를 기점으로 하여 모더니즘(Modernism)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파운드(Ezra Pound), 엘리엇(T. S. Eliot), 오든(W. H. Auden) 등이 과거의 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대 도시 문명의 여러 가지 상황, 말하자면 현대의 과학, 산업, 풍습 등을 노래하였던 때이다.

모더니스트들은 현대문명이 야기한 윤리 기준의 쇠퇴, 가치의 전도, 물질주의, 기계 문명, 부패와 착취, 전쟁의 위협과 그 잔인성에 회의와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며 위기 상황의 극복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하여 과거나 감상적 세계로 도피하려는 문학이나 사상을 경멸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도시 문명의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고 자연을 노래하는 프로스트가 시대의 흐름을 벗어난 감상주의적 낭만주의자로 여겨진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실제로 파운드는 프로스트의 첫 시집 『소년의 의지』(*A Boy's Will*)가 출판되기 전인 1912년 런던에서 처음 프로스트를 만나 리뷰를 써 주기도 했는데, 위대한 이미지스트이자 신예 작가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후원자였던 그에게서 프로스트가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뉴잉글랜드의 향취가 살아있는 소품들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물을 채색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줄 아는 좋은 감각을 지닌 시인”(Parini 129 재인용)이라는 다소 성의없는 평가였다. 1922년, 엘리엇과 조이스(James Joyce), 두 명의 모더니스트 시인에 대하여 프로스트와 설전을 벌였던 뉴욕 트리뷴지의 칼럼니스트 라스코(Burton Rascoe) 역시 “프로스트는 성실하고 순박하며, 가식 없고, 유머러스하며, 사실적인, 호감이 가는 인물이다. 나는 인간 프로스트를 매우 숭배한다. 단지 그의 시 속에 그렇게 나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그의 시

들은 능란하고, 힘이 있으며, 땅의 냄새가 배어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다”(Parini 219 재인용)라고 말하며 프로스트의 시에 대한 모더니스트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프로스트 또한 “나는 애매 모호한 시를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말이 되어 나오기도 전에 뚜렷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입 밖으로 나온 후에는 아주 뚜렷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엘리엇의 시를 즐겨 읽는데 그것은 그가 사물을 취급하는 방식이 재미있게 읽을 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방식일 뿐 나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Lathem 40-42)라고 말할 정도로 미학의 차이로 인한 엘리엇과의 불화를 공공연히 드러낼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낭만주의자들과의 유사성과 모더니스트들과의 불화는 단순히 프로스트의 반현대성을 증명하는 것일까? 프로스트의 75회 생일 축하연에서 “공포스러운 시인”(terrifying poet)이라는 말로 프로스트의 현대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트릴링(Lionel Trilling)에 대해서는 번쇼(Stanley Burnshaw)를 위시한 많은 전기 작가들이 언급하고 있는데(105), 그에 대한 해석 중 유의해 볼 만한 것은 포리어(Richard Poirier)의 것으로 그는 “트릴링이 말한 ‘공포스러운’(terrifying)이라는 단어를 「의도」(Design), 「꺼져라, 꺼져라—」(Out, Out—), 「하인들의 하인」(A Servant to Servants) 등 프로스트의 대표적인 시들에 그려지고 있는 공포스러운 실상(terrifying actualities)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각하게 하는 프로스트의 문학적 특성에 연관하여 해석해야 한다”(4)고 말한다. 다시 말해 “프로스트가 낭만주의자들의 계보를 거쳐 내려온 오랜 진리들을 재확인하거나 긍정하지 않고, 삶의 끔찍한 실상들을 그만의 방식으로 재현해냄으로써 유럽으로부터 물려받은 낡

은 의식을 뒤엎고 그 아래 싹트고 있던 새로운 의식을 자리잡게 만드는 혁신적인 과업을 이루었다”(Poirier 5)는 것이다. 포이리어는 이러한 의미의 단절에서 프로스트의 현대성을 찾았다. 다시 말해 모더니스트(Modernists)들이 20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서구의 문학적 전통 밖에서 태어난 돌연변이였다면, 프로스트는 그 전통의 틀 안에서 현대로의 혁신을 꾀했던 온건한 모더니스트(a modernist)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프로스트의 시에 찾을 수 있는 단절이라는 현대적인 주제의 의미와 그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시 세계를 보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워즈워드와 비교하여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통해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단절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다음 구체적인 시의 분석을 통해 자연과 인간과의 단절,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스트가 이 단절된 관계를 재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제의 시를 잠정적인 버팀목으로 삼아 혼돈을 극복하고 삶의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시 한편으로 하나의 형상—the figure a poem makes—(Frost 1962, 2)을 그린다면 한 시인의 시 세계가 그리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가 뒤섞인 한 폭의 그림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단절”의 주제 아래 프로스트가 그린 형상들을 분류하고 재배치하여 그의 시 세계를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시도를 통해 자연 시인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프로스트의 시의 현대적인 특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

프로스트의 시를 분석함에 있어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그의 시가 예이츠(W. B. Yeats)나 엘리엇 또는 월러스 스티븐스(Wallce

Stevens)와는 달리 시집이 한 권 씩 출간됨에 따라 어떤 뚜렷한 방식의 발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기록해 놓은 다음 몇 년 후, 심지어는 10, 20년 후에 가서 몇 번의 개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시를 발표하는 그의 특이한 작법이 그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작의 특성 때문에 주제 상으로나 기법 상으로나 어떠한 형식의 발전이나 성장을 식별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중기 이후에 발표된 시집들, 『더 먼 영역』(*A Further Range*), 『증인목』(*A Witness Tree*), 『장애물용 관목』(*Steeple Bush*)에 실린 시들 중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의도」(*Design*) 「버려진 곳들」(*Desert Places*) 「최대한의 것」(*The Most of It*) 「파괴된 꽃」(*Subverted Flower*)을 위시한 많은 시들이 이미 초기 시절 퇴고하지 않은 완성본, 혹은 미완성본의 형태로 그의 폴더에 수록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의 전기 작가인 제이 패리니(Jay Parini)의 말대로 “프로스트는 이미 젊은 시절 그의 필생의 비전을 완성시켜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비전을 재언급, 재창조, 재구성해 나갔던 것이다. 그의 시에는 앞으로 전진하는 도약이 아닌 몰입과 확인, 그리고 미묘한 확장이 있을 뿐이다”(248).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시들은 주제와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그의 9편의 시집에서 골라 뽑은 것으로 본 주제의 전개에 맞춰 구성되어 있을 뿐 프로스트의 시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상이나 기법상의 발전에 따라 구성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II. 본 론

1. 단절의 의미

낭만주의 시인들이 일종의 구원으로서 자연과의 유대를 통해 인간 사회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프로스트는 자연을 구원이나 도피처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삶과 평행선상에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단절이라는 주제의 의미를 짚어 보기로 한다.

자연이라는 같은 소재를 노래하고 있음에도 워즈워드와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자연의 색깔은 무척 다르다. 워즈워드가 자연의 순수함에서 숭엄함까지 봄과 여름을 통과하는 생명력의 절정을 그의 시에 담으려고 노력했다면, 프로스트는 늦은 가을에서 겨울에 이르는 정물로서의 황량한 자연을 곧잘 시의 소재로 삼았다. 따라서 워즈워드의 자연은 포용적이고 따뜻하며 신비롭기까지 하지만 프로스트의 자연은 무심하며, 차갑고, 대단히 사실적이다. 이러한 차이점의 주요 원인은 그들의 시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관이 어떻게 다른가, 즉 그들이 각각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대한 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이후의 시인이나 독자들에게 “워즈워드 식의 (Wordsworthian)이라는 단어는 곧바로 “자연 시인”(poet of nature), “감정의 교사”(teacher of feeling)라는 의미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Brower 41). 워즈워드는 자연을 인간의 가장 훌륭한 교사로 보고

자연의 영(靈)과 인간의 영(靈) 사이에는 일맥 상통한 점이 있으며, 즉흥적인 감정의 촉발 순간에 맞보는 자연과의 동질감, 그 끊임없는 교류에 의해서 인간은 힘과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서정시 「나는 구름처럼 외로이 떠돌았네」(I Wandered Lonely as a Cloud)를 통해서도 이러한 그의 목소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골짜기와 산 위를 높이 떠도는
구름처럼 외로이 떠돌았네
그러다 문득 한 무리 꽃을 보았네
무수한 황금빛 수선화
호숫가 나무 밑에서
미풍에 흔들리며 춤추는 것을.

그들은 은하수에서 반짝이는
별들처럼 이어져
호숫가를 따라 돌며
끝없이 끝없이 피어 있었네
수만 꽃송이가 한눈에 들어왔네
머리 까딱대며 흥겹게 춤추는 모습이.

반짝이는 물결 그 곁에서 춤추었으나
꽃들의 흥겨움이 한결 더했네
그처럼 유쾌한 무리와 어울리니
시인인들 즐겁지 않을 수 있었을까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That floats on high o'er vales and hills,
When all at once I saw a crowd,
A host, of golden daffodils;
Beside the lake, beneath the trees,
Fluttering and dancing in the breeze.

Continuous as the stars that shine
And twinkle on the milky way,
They stretched in never-ending line
Along the margin of a bay:
Ten thousand saw I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sprightly dance.

The waves beside them danced; but they
Outdid the sparkling waves in glee;
A poet could not but be gay,
In such a jocund company;

(Abrams 211)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구름처럼 떠도는 이 외로운 방랑자는 사실 “골짜기와 산”(vales and hills)이나 “호숫가”(the margin of a bay)와는 연관이 없는 인물이다. 실제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자. “나는 보고 또 보았지—”(I gazed— and gazed—)의 표현을 보면 그는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는 카메라의 눈일

뿐 그 풍경 속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눈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의 화자와 같이 시가 그려내고 있는 세계 속에 자신의 위치를 확립시키고 있는 프로스트의 인물과 뚜렷이 대조된다. 다시 말해 이 외로운 방랑자는 실체를 가진 인간이라기 보다 바라보는 관찰자에 가깝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수선화와 물결과 별들이 시인과 함께 유쾌한 한 무리로 어우러져 춤추는 경이로운 변이, 합일의 의식이 펼쳐진다. 브라우어의 해석에 따르자면, 수선화를 바라봄으로써 인간이 얻을 수 있었던 진정 “값진 것”(wealth)은 후일 그가 고독 속에서 그 정경을 회상할 때 그 합일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되살아남을 느낌으로서 그의 정신이 충만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다(43).

나는 보고 또 보았지만 그땐 미처 몰랐네
그 광경이 내게 얼마나 값진 걸 주었는지:

지금도 가끔 긴 의자에 누워
마음을 비우거나 생각에 잠길 때면,
고독의 축복이랄 수 있는 마음의 눈에
그 수선화들 문득 스쳐가곤 하네;
그러면 내 가슴 기쁨으로 가득 차
수선화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춘다네.

I gazed — and gazed — but little thought
What wealth the show to me had brought:

For oft, when on my couch I lie
In vacant or in pensive mood,
They flash upon that inward eye
Which is the bliss of solitude;
And then my heart with pleasure fills,
And dances with the daffodils.

(Abrams 211)

시를 읽고 나면, 인간의 체취가 배어 있지 않은 이 초연한 목소리가 주는 인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것을 일상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행위하는 개인적인 인간 ‘나’ (I)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웬지 어색하기만 하다.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존재하고 그에 동화되어 일체를 이룬 목소리는 있으되, 살아 숨쉬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는 사실적인 인간은 배제되고 자연과 시인의 목소리만이 한없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는다.

「빠꾸기에게」(To the Cuckoo)에서 워즈워드는 「나비에게」(To a Butterfly)와 마찬가지로 즐겨 쓰던 몽상가의 목소리 대신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가볍게 말을 건네듯 직접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방법을 쓰고 있다.

오, 유쾌한 새 손(客)이여!
예 듣고 지금 또 들으니, 내 마음 기쁘다.

O blithe new comer! I have heard,

I hear thee and rejoice.

(Abrams 214)

하지만 그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내면의 귀는 빼꾸기를 다른 존재로 변이시킨다. 빼꾸기를 다른 봄 새들과 구별하는 것은 그 목소리 같은 노랫소리밖에 없지만, 그것 역시 소리의 주인공이 새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어떤 것으로 느껴지도록 묘사되어 있다.

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의 목소리요, 수수께끼....

No bird, but an invisible thing,
A voice, a mystery....

(Abrams 214)

어린 시절의 환상이 돌이켜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마지막 연에 이르러 이 “축복 받은 새”(blessed bird)는 시인을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 속으로 옮겨놓는 성인과 같은 존재가 된다. 자연과 시인의 목소리는 범열과도 같은 순간에 일체를 이루고, 구름 속을 외로이 떠돌던 방랑자의 경우 보다 더 확실히 현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워즈워드의 시 속에서 내면의 비전에 의해 자연과의 경계를 허문 인간(시인 혹은 화자)이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형이상

학적인 단계로까지 발전해 가는 상상력의 비상을 찾을 수 있다면, 단순한 자연 관찰에서 시작하는 프로스트의 시는 회화체의 구문과 노래가 기묘하게 뒤섞인 지극히 사실적인 목소리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인의 태도를 담담히 드러내 보여준다.

「빠꾸기에게」(To the Cuckoo)와 같이 자연에 대한 워즈워즈적인 찬미를 볼 수 있는 프로스트의 초기 시 「로즈 포고니아스」(Rose Pogonias)는 프로스트가 낭만주의의 영향 아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지만, 그런 찬미시에서조차 후일 프로스트가 가게 될 방향을 가리키는 가벼운 기지와 가볍지 않은 일상의 해학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둘이 둘을 본다」(Two Look at Two)등 몇 작품에 등장하는 연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는 워즈워즈처럼 황홀경에 젖어 자신을 잃거나 고독에 몰입함으로써 옆으로 비켜서거나 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하고 친근하며, 그의 인물들은 실체를 가진 사실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당당히 시가 그리는 풍경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워즈워드의 기교가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그 차이를 흐리게 하는데 있었다면, 프로스트는 자연과 인간의 극적인 충돌을 포착하고 그 갈등을 이용하여 시를 풀어 가는데 탁월한 소질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Brower 76).

「눈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는 자연과 인간의 상반된 태도가 뚜렷이 드러나는 시로서, 눈 앞에 유혹적으로 펼쳐져 있는 신비한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이 인간 세계에 얽매인 몸이라는 사실을 곳곳이 되새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낭만주의적 자연관을 청산하고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프로스트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이 누구의 숲인지 알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집은 마을에 있으니
내가 여기 서서 눈에 덮여 가는 숲을
바라보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하리라.

일년 중 가장 어두운 저녁
주변에 농가라고는 하나 없는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멈춰 선 내가
내 조랑말은 이상한 듯하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조랑말이 방울을 흔들며 묻는다.
그밖에 들리는 것은 느슨한 바람과
숨털 같은 눈송이가 쓸리는 소리 뿐.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하지만 내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기에
잠들기 전 몇 마일을 더 가야만 한다.
잠들기 전 몇 마일을 더 가야만 한다.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He gives his harness bells a shake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
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Of easy wind and downy flake.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Frost 224-225)

프로스트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고독한 인간의 모습, 얼어붙은 추운 겨울 밤 어둠 속에서 한 발 한 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눈이 내리는 숲가에 멈춰선 나그네에게 자연은 신비롭고 아름답기만 하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자연의 모습은 어쩌면 가먼일지도 모른다. 숲은 “아름답지만”(lovely) 동시에 “어둡고”(dark) “깊기”(deep) 때문이다.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자연의 신비한 모습에 유혹되는 화자에게선 힘든 세상사를 잊고 안주하고 싶은 죽음에의 염원 (death wish)까지도 느껴진다. 하지만 갑자기 들려온 조랑말의 방울 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는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 행을 주문처럼 반복하면서 그는 고독과 위협, 신비롭지만 치명적인 자연을 뒤로 하고 삶의 의무가 기다리는 현실 사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자연의 외면에 유혹되지 않고 인간 사회를 선택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낭만주의자들에 비해 더욱 사실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위치를 깨닫는, 다시 말해 맹목적인 유대 관계로 인해 종속되다시피 했던 자연과의 관계에 단절을 꾀하는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산 계곡』(*Mountain Interval*)에 실렸던 「자작나무」(*Birches*)에서도 프로스트는 도피처인 자연으로의 몰입이 줄 수 있는 안락함을 마다하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

세상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진다.
그렇다고 운명의 신이 일부러
나의 소원을 절반만 들어 주셔서
나를 데려가 아주 못 돌아오게 하진 않겠지.
세상은 사랑하기에 알맞은 곳.
어느 곳에 이 세상 보다 나은 곳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자작나무를 기어오르듯 살고 싶어라.
하늘을 향해,
거무스레한 가지를 타고 눈처럼 흰 줄기를 올라
자작나무가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줄기의 끝을 휘어 다시

땅 위로 내려놓을 때까지.
갔다가 돌아옴도 다 좋은 일이다.
자작나무를 타는 이가
되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리라.

I'd like to get away from earth awhile
And then come back to it and begin over.
May no fate willfully misunderstand me
And half grant what I wish and snatch me away
Not to return. Earth's the right place for love:
I don't know where it's likely to go better.
And climb black branches up a snow-white trunk
I'd like to go by climbing a birch tree,
Toward heaven, till the tree could bear no more,
But dipped its top and set me down again.
That would be good both going and coming back.
One could do worse than be a swinger of birches.
(Frost, 122)

복잡한 인간사를 벗어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자작나무를 타고 하
늘로 높이 오르게 되면 결국 자신을 받쳐 줄 힘이 모자라 땅 위로
내려서게 되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 멀어지게 되면 나를 지탱해
줄 따뜻한 인간의 손길이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이 세상은 사랑하
기에 알맞은 곳” (Earth's the right place for love)이다. 자연이 일

시적 도피처가 될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직접 부딪쳐 해결하려는 프로스트의 태도는 「나이팅게일에게 바치는 노래」(Ode to Nightingale)에서 키이츠가 보여 주었던 낭만주의의 전형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준다.

내가 마시고, 보이지 않게 세상을 떠나,
너와 함께 어두운 숲 속으로 사라졌으면.

멀리 사라지고, 융해되어, 잎들 사이에 있는
제가 결코 알지 못했던 것, 이 세상의
권태, 열병, 그리고 초조함을 완전히 망각했으면,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여기,
충풍이 슬픈 마지막 남은 몇 가닥 흰 머리카락들이 떨고
있는 이곳,
젊음이 창백하게 되고, 유령처럼 여위어, 죽는 이곳,
단지 생각만 해도 슬픔과 눈까풀에 납덩이처럼 내려앉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
아름다움이 그 빛나는 눈물을 보존할 수 없고,
새로운 사랑이 내일을 넘어
그것들을 애타게 그리워할 수 없는 이 곳을.

가거라! 가거라!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날아 갈 것이니,
마커스와 그의 표범들이 끄는 전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의 날개를 타고.

That I might drink, and leave the world unseen,
 And with thee fade away into the forest dim:
 Fade far away, dissolve, and quite forget
 What thou among the leaves hast never known,
 The weariness, the fever, and the fret
 Here, where men sit and hear each other groan;
 Where palsy shakes a few, sad, last gray hairs,
 Where youth grows pale, and spectre-thin, and dies;
 Where but to think is to be full of sorrow
 And leaden-eyed despairs,
 Where Beauty cannot keep her lustrous eyes,
 Or new Love pine at them beyond to-morrow.

Away! away! for I will fly to thee,
 Not charioted by Bacchus and his pards,
 But on the viewless wings of Poesy.

(Abrams 823-824)

이 시는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대조시키며 이상의 세계인 자연 속
 으로 도피함으로써 현실에서 겪은 좌절을 잊으려 하는 낭만주의의
 전형적 형태를 보여 준다. 「눈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에서 지친 여행자의 영혼을 유혹하던 깊은
 숲과 「자작나무」(Birches)에서 돌아옴 없이 자작나무의 끝을 타고
 올라가기를 바랬던 무한의 장소는 키이츠가 나이팅게일과 함께 떠
 나가기를 바랬던 “저 어슴프레한 숲”(the forest dim)과 동일한 맥

락의 안식처, 도피처로서의 자연이다. 하지만 키이츠의 화자가 시인의 자아의식의 변형이자 자연의 상징인, 즉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 나이팅게일과 함께 영원한 이상향속으로 도피하여 안주하기를 바랬다면, 프로스트의 화자들은 자신의 발이 현실이라는 땅을 딛고 서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결국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이상향인 자연의 유혹을 떨치고 현실과 맞부딪쳐야 함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스트는 이와 같이 현실을 등지고 자연을 인간의 도피처로 삼았던 낭만주의적 해법을 부정하고 화자의 마지막 선택이 자연이 아닌 인간 세상이 되게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 낭만주의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단절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낭만주의의 세계 속의 자연이 더 숭고한 차원으로의 고양을 위해 무중력 상태의 인간(화자 혹은 시인)이 열망했던 인도자, 그리고 현실의 한계에 부딪힌 인간이 갈구한 도피처의 역할을 했다면, 프로스트의 자연은 공포와 위협, 위안과 안식이라는 양면의 얼굴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현실의 인간과 대면한다. 자연과의 동화, 일체감이 지상 명제였던 낭만주의를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전제된 자연과 인간의 유대가 보다 냉엄한 객관적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프로스트의 눈에는 단절된 것으로 보여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 단절의 주제가 프로스트의 시에서 어떤 양상으로 그려져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단절의 양상

(1)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앞장에서는 프로스트의 시 속에 나타난 단절의 의미를 낭만주의 자연시의 근간인 인간과 자연과의 유대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다. 프로스트에 이르러 사실적인 인간의 목소리가 구체화됨에 따라 워즈워드 이후 낭만주의적 자연시의 계보를 따라 이어져 온 일방적인 자연 주도의 유대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을 경이의 감정으로 바라보기만 하던 대상이 아니라 갈등과 반목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과 대등한 객체로서 공존하게 되었다. 물론 프로스트의 시를 고찰하는데 있어 워즈워드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퍼킨스(David Perkins)는 워즈워드와 셸리, 키이트와 같은 낭만주의의 1세대들을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프로스트도 그들의 추종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들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즈워드나 셸리, 키이트와 같은 최초의 낭만주의자들을 생각한다면, 비록 약간 기이한 방식을 취하긴 했지만 프로스트 또한 그들의 추종자 중 한 명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낭만주의적 시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그에 반하는 글을 썼다. 그는 전형적인 낭만주의의 시각들을 부인하고, 수정하거나 때로는 단순히 그들에 대한 지지를 거부함으로써 그 자신의 시각을 표명했다. (243)

말하자면 워즈워드를 비롯한 낭만주의 시인들이 프로스트에게는 블룸(Harold Bloom)이 말한 바 있는 “강력한 시인들”(strong poets) 즉 기준을 제공하는, 극복의 대상이 되는 시인들이었던 셈이다. 프로스트는 워즈워드와 자연시라는 기본적인 틀만을 공유했을 뿐 워즈워드가 그렇게도 정열적으로 표시하였던 자연과 인간의 융합관계를 부인하고 정반대의 입장에서 사실적,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며 자연과 대등한 인간을 그려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자연과 인간과의 반목, 갈등, 단절을 다루었던 것이다.

우선 프로스트의 시 세계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은 그가 그리는 풍경이 워즈워드와는 달리 어둡고 황량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워즈워드의 세계는 신비로운 생명력의 순수함으로 가득 차있다. 이는 그의 주요 모티프가 ‘아이’와 ‘봄’인 점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반면, 프로스트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노인’과 ‘겨울’의 등장이 빈번하다. 워즈워드의 어린아이가 뛰놀았던 곳에는 「노인의 겨울밤」(An Old Man's Winter Night)에서 보듯 노인의 지친 몸이 웅크리고 있고, 흐드러진 수선화의 무리가 물결치던 곳에는 「습격」(The Onset)이나 「눈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에서와 같이 차갑고 무감정한 눈이 쌓인다. 그리고 인간을 영원의 세계로 초대하던 빠꾸기의 노랫소리가 감돌던 나뭇가지에는 「시골의 것들을 시로 쓸 필요」(The Need of being Versed in Country Things)에서와 같이 인간의 슬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노래하는 어지러운 새들의 노랫소리만 가득 할 뿐이다. 인간을 포용하던 워즈워드의 자연과는 달리 프로스트의 자연이 주는 이미지는 인간을 한없이 움츠러들게 한다. 거버(Philip L. Gerver)는 프로스트의 모든 계절이 겨울로부터 유도되어 겨울과 하얀 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까지 말한다(166). 그리고 일견 평온해 보이기도 하는 하얀 눈의 표면 밑에는 언제나 적의에 찬 무엇이 숨어있다. 사람과 자연 속에 내재한다는 영(靈)에 대한 이미지도 없고, 인간의 번뇌를 감싸 안는 구원자로서의 자연의 이미지도 찾을 수 없다. 워즈워드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애매한 주관성이 내포된 인간의 심리와 풍경과의 혼합, 또는 자연 풍경과 도덕적 감정의 미묘한 친근성과는 달리 프로스트의 세계에서 그리는 자연은 인간 정신과의 유대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Lynen 141-145).

1913년 출간된 프로스트의 첫 시집 『소년의 의지』(*A Boy's Will*)에 실린 「폭풍의 공포」(*Storm Fear*)는 폭설로 인해 고립된 한 가족의 이야기로 그들의 외판 농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절망감은 프로스트의 자연이 야기하는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엄습한다.
눈보라를 몰고 와
아래 층 동녘 창을 때리며
숨죽이고 짓듯이 속삭인다.
저 짐승 같은 소리,
“밖으로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
나가지 않기 위해 심적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다.
아, 없고 말고.
나는 대항할 힘을 헤아려 본다.
어른 둘과 아이 하나,
잠들지 못한 우리들, 웅크린 채 주시한다.
끝내 난로에 불이 꺼지자 냉기가 스며드는 것을.

뜰과 다듬어지지 않은 길에
눈이 쌓이는 것을.
그간 위안이 되었던 곳간 마저 멀어지고,
내 마음에 의심이 스며든다.
내일 아침 우리에게 일어날 힘이 있을까.
도움 없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When the wind works against us in the dark,
And pelts with snow
The lowest chamber window on the east,
And whispers with a sort of stifled bark,
The beast,
‘Come out! Come out!’ —
It costs no inward struggle not to go,
Ah, no!
I count our strength,
Two and a child,
Those of us not asleep subdued to mark
How the cold creeps as the fire dies at length,—
How drifts are piled,
Dooryard and road ungraded,
Till even the comforting barn grows far away
And my heart owns a doubt
Whether it is in us to arise with day
And save ourselves unaided.

(Frost 9-10)

1901년 처음 쓰였다가 10년 후 개작되어 1913년에 발표된 이 시는 28세의 프로스트가 처음으로 소유했던 데리 농장에서의 실제 경험과 젊은 가장으로서 그가 가져야 했던 책임감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바탕으로 쓴 초기의 수작이다.

외딴 농장을 둘러싼 자연, 바깥의 날씨가 짐승으로 의인화되어 공포에 휩싸인 화자의 가족들을 난로가로 뒷걸음치게 만든다. 하지만 그들을 지켜주는 듯했던 불씨도 꺼져 버리고, 마지막 3행에 이르러서는 이 눈보라의 무자비한 공격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화자 자신이 다시 생활을 계속해 나갈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럽다. 거친 자연에 노출된 인간이 느끼는 공포의 묘사가 아주 사실적이다. “어른 둘과 아이 하나”(Two and a child)에서 “끝내 난로에 불이 꺼지자 냉기가 스며드는 것을”(How the cold creeps as the fire dies at length,—)로 넘어가는 행에서 세 가족의 삶의 의지와도 같은 불씨를 꺼트리고 다가오는 냉기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두려움, 화자의 연약한 자아를 흡수하기 위해 위협을 가해오는 밀튼적 혼란(Miltonic Chaos)과도 같다(Parini 82). 화자의 생의 의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눈보라치는 바깥 날씨(outer weather)인 동시에 그 자신이 갖는 실존에 대한 두려움(inner weather)인 것이다. 그리고 뭔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하면서 화자는 이야기를 끝맺는다.

거친 자연이 주는 두려움과 위압감은 「어느 날 태평양 연안에서」(Once by the Pacific)에도 잘 나타나있다. 이 시는 프로스트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기억을 되살려 쓴 것으로, 중기의 시집인 『서쪽으로 흐르는 개울』(West-Running Brook) 안에 「어둠이 있으라」(Fiat Nox —Let There Be Darkness)

라는 소재로 묶은 몇 편의 시들 속에 포함되어있는 작품이다.

부서지는 물결은 요란하게 물보라를 일으켰다.
거대한 파도는 뒤따르는 파도들을 돌아보며
일찍이 물이 땅에 끼쳐 본 적 없는
큰 피해를 해안에 끼쳐 볼까하고 생각했다.
번뜩이는 눈빛을 가리며 앞으로 훔날리는
산발한 머릿단처럼, 구름은 하늘에 낮게 깔려있다.
누가 알 수 있었으랴만, 다행스러운건
해안을 절벽이 받치고 있고,
그 절벽을 대륙이 받치고 있는 듯 보였다는 것이다.
어두운 의도를 품은 밤이 다가오는 듯했다.
그저 하룻밤이 아니라 한 시대의 밤일 것이다.
누군가 분노에 대비하는 것이 좋으리라.
신이 끝내 “빛을 지워라”고 말하기 전에
대양의 물보다도 더한 것이 부서질 것이기에.

The shattered water made a misty din.
Great waves looked over others coming in,
And thought of doing something to the shore
The water never did to land before.
The clouds were low and hairy in the skies,
Like locks blown forward in the gleam of eyes.
You could not tell, and yet it looked as if
The shore was lucky in being backed by cliff,

The cliff in being backed by continent;
 It looked as if a night of dark intent
 Was coming, and not only a night, an age.
 Someone had better be prepared for rage.
 There would be more than ocean-water broken
 Before God's last *Put out the Light* was spoken.

(Frost 250)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거대한 파도는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양 매우 위압적인 태도로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해안에는 벼랑이 있어 그 위협적인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니치(George Nitche)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벽을 둠으로써 둘 사이에 유기적인 연속성이 없음을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28). 프로스트가 인간과 자연을 스스로의 독립된 영역을 가진 두 개체로 나누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몰려오는 거대한 파도는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암흑의 시대와 같이 느껴진다. 신의 징벌인 것처럼 자신을 핍박해오는 거친 자연 앞에서 시인은 오직 두려울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부여한 “빛”이 꺼져간다는 사실에 분노한 신이 스스로 그 빛을 꺼버리기 전에, 인간은 암흑에 대해, 파괴에 대해, 그리고 신의 분노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언젠가 태평양 연안에서」(Once by the Pacific)와 마찬가지로 「어둠이 있으라」(Fiat Nox)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 창가의 나무」(Tree at My Window)에서도 인간과 자연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집안에 있는 화자와 집밖에 서 있는 나무는

서로 간에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 —물리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영역—을 지키고 있다.

내 창가의 나무야, 창나무야.

밤이 되면 창문은 닫겠지만

장막일랑 치지 말자꾸나,

너와 나 사이에

.....

하지만 나무야, 나는 네가 불잡혀 흔들리는 걸 보았다.

네가 만약 내 잠자는 모습을 보았다면

나 또한 불잡혀 휩쓸리며

헤매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게다.

우리 두 머리를 맞대게 하던 그 날

운명의 여신은 상상에 골몰해 있었던 게다.

그래서 네 머리가 바깥 날씨에 그토록 집착할 때,

내 머리는 이토록 내면의 날씨에 집착하는 게지.

Tree at my window, window tree,

My sash is lowered when night comes on;

But let there never be curtain drawn

Between you and me.

.....

But tree, I have seen you taken and tossed,
And if you have seen me when I slept,
You have seen me when I was taken and swept
And all but lost.

That day she puts our heads together
Fate had her imagination about her,
Your head so much concerned with outer,
Mine with inner, weather.

(Frost 251-252)

자연과 인간은 서로 일치하는 것, 즉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영(靈)에 의해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둘이 공통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나무는 바깥의 날씨에 몹시 시달리고 화자는 정신적인 내적 날씨에 몹시 흔들렸을 뿐이다. 하지만 일견 단순한 시인의 독백으로 보이는 이 시가 「어둠이 있으라」(Fiat Nox)라는 어둠을 주제로 묶은 시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프로스트 자신이 “나 또한 붙잡혀 휩쓸리며 헤매고 있는 것”(I was taken and swept, and all but lost)의 문맥에 보다 어두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람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땅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에 비해 존재를 위협하는 암흑에 휩싸여 마침내 길을 잃어버린 화자의 암담함은 실존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어쩌 보면 화자의 내면적 불안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할 나무의 물리적 흔들림은 무심하고 여유롭기까지 하다. 그만큼 인간사와 자연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 독립된 관계는 때때로 인간이 손을 내밀어 보려 해도 냉담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연이 그려짐으로 해서 교감의 단절로까지 이어진다. 인간과 자연의 단절된 관계는 『증인목』(*A Witness Tree*)에 실린 「최대한의 것」(*The Most of It*)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신만이 이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다.
그가 불러 낼 수 있는 응답의 목소리라곤
저 호수 너머 나무에 가려진 절벽으로부터
조롱하듯 되돌아온 자신의 목소리뿐이었으니까
자갈이 깔린 물가에서 그는 어느 날
삶을 향해 외쳤다. 필요한 것은
사랑의 복사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사랑이며 독자적인 반응이라고.

.....

힘차게 거대한 솟사슴으로,
앞의 구겨진 물을 밀치고
폭포처럼 쏟아지며 물으로 올라와
단단한 발걸음으로 바위 사이를 달려가
덤불 숲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것이 전부였다.

He thought he kept the universe alone;
For all the voice in answer he could wake
Was but the mocking echo of his own
From some tree-hidden cliff across the lake.
Some morning from the boulder-broken beach

He would cry out on life, that what it wants
Is not its own love back in copy speech,
But counter-love, original response.

.....

As a great buck it powerfully appeared
Pushing the crumpled water up ahead,
And landed pouring like a waterfall,
And stumbled through the rocks with horny tread,
And forced the underbrush —and that was all.

(Frost 338)

이 넓은 우주에 홀로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자연과의 교감 또는 인간적인 사랑을 구하려고 힘껏 절규했으나 들려오는 소리는 호수 건너 숲에 가려진 벼랑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조롱하는 듯한 자신의 목소리—“its own love back in copy speech”—일 뿐 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타인에게서 오는 사랑, 그의 사랑에 대한 실제의 반응—“counter-love, original response”—은 아니다. 한참만에 그에 대한 답인 것 마냥 수사슴 한 마리가 야단스런 소리를 내면서 물에서 튀어 나왔지만 결국 이 동물 역시 인간인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덤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소외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도 단절되어 더 이상 그의 고독을 달랠 길이 없는 것이다. 이 수사슴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뚜렷하다. 프로스트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인간의 의도, 목적을 위하여 실상을 왜곡시키는 어떤 목적론적 비틀기 (teleological twist)와도 양립할 수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의 자연에 매료되어 있었고, 황량하게 펼쳐진 호수 속에서 나타나 관찰자

인 인간을 무시하면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딱딱한 발굽을 내지르는 이 낮설고 경이적인 동물 “거대한 숫사슴”(great buck)은 프로스트가 그리고자 했던 광폭하면서도 비인간적인 자연의 본질을 구체화시킨 존재인 것이다(Parini 110).

인간에 무관심한 자연은 「시골의 것들을 시로 쓸 필요」(The Need of Being Versed in Country Things)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집이 타버려 굴뚝만이 남은 폐허에 그런 비극적인 인간사에는 전혀 아랑곳없이 자연은 또 다시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운다. 인간과의 교류의 창을 닫아버린 자연에게는 더 이상 인간의 슬픔에 공명할 여지가 없다.

대기를 가로질러 다가온 새들은
부서진 유리창으로 들락날락 하는데,
사라진 집터 위의 너무나 많은 법석임으로 인해
우리가 내쉬는 한숨과도 같은 그들의 중얼거림 소리.
하지만 그들을 위해 라일락은 새 잎을 터뜨렸다
그리고 느릅나무도, 비록 불에 그을리긴 했지만.

.....

그들에게는 진실로 슬플 일이 없었던 것이다.

The birds that came to it through the air
At broken windows flew out and in,
Their murmur more like the sigh we sigh
From too much dwelling on what has been.
Yet for them the lilac renewed its leaf,

And the aged elm, though touched with fire;

For them there was really nothing sad.

(Frost 242)

자연과 인간사 사이에 어떠한 교감도 없음은 「영역 찾기」(Range Finding)에도 잘 그려져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소넛의 전통적 형식에 목가적인 전원 풍경을 담고 있지만 그 배경으로 비정한 전투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투가 다이아몬드가 매달린 거미줄을 세내고,
땅 위에 지은 새 둥지 옆에 핀 꽃을 꺾었다
인간의 심장 하나가 그로 인해 더럽혀지기 전에.
한 대 맞은 꽃이 반으로 접혀져 그렇게 매달려 있다.
그리고 여전히 새들은 새끼들을 다시 찾아왔다.
그 일격에 처리되었던 나비 한 마리
순간 쉴 수 있는 꽃을 찾아 대기 중을 헤매다
가볍게 그 꽃 위로 내려앉아, 파닥이며 매달려 있었다.

The battle rent a cobweb diamond-strung
and cut a flower beside a ground bird's nest
Before it stained a single human breast.
The stricken flower bent double and so hung.
And still the bird revisited her young.

A butterfly its fall had disposed
 A moment sought in air his flower of rest,
 Then lightly stooped to it and fluttering clung.
 (Frost 126)

전투 시에 쏜 탄환이 석류 같은 이슬이 맺힌 거미줄을 찢고 땅 위에 만든 새 둥지 결의 꽃을 붉게 물들인다. 이미 이 탄환은 앞서서 사람의 가슴을 꿰뚫고 나온 유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사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자연계는 예나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다. 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둥지를 찾아들고, 나비는 다시 부러진 가지 위에 앉아 퍼덕인다. 보다시피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는 별개이다. 그 장면 속에 벌어지는 일들, 총탄, 꽃, 나비, 거미 이 모두가 서로 융합되기는커녕 각기 분리된 독립적인 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 찾기」(Range Finding)가 죽음이라는 인간사가 펼쳐진 위에서 이에는 아랑곳없이 생을 살아가는 자연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했다면, 1922년에 처음 발표되어 나중에 『더 먼 영역』(*A Further Range*)에 수록된 「의도」(Design)는 어느 날 화자가 목격하게 된 자연계 속의 죽음, 음모의 현장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이 시는 특히 자연 속에서 인간과 융합할 수 있는 영(靈)을 찾고 그것을 형이상학적 단계로까지 끌어올려 모든 자연물에 인간과 교감하는 신적인 특성이 내재해있음을 토론했던 위즈워드의 범신론적 자연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프로스트의 종교적 회의주의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시이다. 다아윈의 출현 이후 말 그대로의 창조신화에 대한 믿음은 불가능해졌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진화론을

차용하여,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 설득력 있는 이론에 영혼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이에 프로스트는 평소 흠모하던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의도로 인하여 야기된 논쟁’(argument from design)에 귀를 기울인다. 일찍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이 자연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 놓았다고 설파했는데, 제임스는 만약 그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무 등걸 속에 숨어있는 벌레가 볼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쪼아대는 딱따구리의 정확성은 틀림없이 악마적인 설계자(diabolical designer)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Parini 111 재인용)”이라고 말하며 신의 예정론을 부정했다. 그리고 다아윈의 이론을 차용하여 자연계 속에서 발견되는 잔인한 법칙들을 신의 뜻에 의해 예정된 것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섭리라고 설명했다. 프로스트는 제임스에게서 영향받은 자신의 생각을 「흰 옷을 입고」(In White)라는 제목의 소넛으로 옮겨 놓았는데, 이 시가 후일 몇 번의 개작을 거쳐 프로스트의 명시 중의 하나인 「의도」(Design)로 완성된다.

어느 날 아침 화자는 “흰 만병초”(a white heal-all)위에서 “통통하고 흰 주름진 거미”(a dimpled spider, fat and white)가 “흰 천 같은 나방”(a moth like a white piece)을 붙잡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죽음과 해로운 벌레의 이미지—spider, moth—가 순결함과 순수함의 이미지—dimpled, fat, white—와 합쳐짐으로써 친근한 자연이 아닌 두려움과 놀람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그려진다. 그 거미는 지금 자신의 꽃잎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순진한 만병초 위에서 먹이로 흰 나방을 잡아 의례적인 아침 식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묘하게도 하얀 색으로 제시된 순진한 대상들, “흰 만병초”(white heal-all), “하얀 나방”(the white moth)은 “마녀

의 수프”(a witch’s broth)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다. 화자는 그 기이함에 사뭇 놀란다.

저 꽃은 대체 흰색을 띠어 어찌자는 걸까,
길가에 과랴게 핀 저 천진무구한 만병초꽃.
흰색 거미를 저 높이까지 오르게 한 후
깊은 밤 하얀 나방을 저 곳으로 내몬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이런 사소한 것들에조차 어떤 섭리가 지배한다면
무서운 어둠의 섭리 아닌 무엇이겠는가?

What had that flower to do with being white,
The wayside blue and innocent heal-all?
What brought the kindred spider to that height,
Then steered the white moth thither in the night?
What but design of darkness to apall?—
If design govern in a thing so small.

(Frost 302)

마지막 행의 “If”를 유의해 보자. 화자는 악의적인 신의 “의도”(design)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만약 존재한다면” 하고 가정할 뿐이다. 만약 있다면 더할 수 없이 공포스러운 일일 테지만, 그것은 가정일 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진화론이라는 근거를 가지게 되어 너무나 다행스러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역력하다. 신이 처

놓은 덧에서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간신히 빠져 나온 것이다. 자연에서 신의 우호적인 면만을 찾았던 낭만주의자들과는 달리 프로스트는 악의의 가능성까지 제시했으며, 결국에는 그나마 미약하게 남아있는 자연과 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이르는 연결고리마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끊어 버림으로써 그의 종교적 회의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자연과 인간 관계의 문제를 놓고 낭만주의적 자연과의 단절을 꾀한 프로스트의 시도를 여러 시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물론 그의 시 중에는 워즈워드의 세계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봄 기도」(A Prayer in Spring), 「씨를 뿌리며」(Putting in the Seed), 「이른 봄의 두 뜨내기 일꾼」(Two Tramps in Mud Time) 등 노동의 기쁨, 용기, 미래에 대한 기대, 세계를 사랑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시들도 있다. 하지만 이 시들에서조차 워즈워드가 말하는 자연과 인간의 영적 일치, 흙에의 집념과 사랑, 자연에 대한 강한 신뢰와 의존성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낭만주의가 너무 주관적으로 자연을 종교화하고, 그 속에 무섭고 싸늘하며 파괴적인, 인간에게 전적으로 무관한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프로스트는 바로 이 점에 입각하여 사실적이고도 객관적인 눈으로 자연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탈출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 그의 시를 어둡게 물들이고 있는데, 스콧라이어(Radcliffe Squires)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프로스트 시의 어두운 분위기가 자연과의 단절을 꾀하면서도 자연 속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됨을 강조했다.

그(프로스트)는 자연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현대인의 무시무시한 노력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동시에 그는 그러한 탈출을 후원하는 바로 그 과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탈출도 불가능함을 암시하는 자연의 법칙들에 의거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초자연적인 단계로까지 부상하게 된 것은 그의 과학이 자연의 일상적인 흐름을 응시하여 법칙들을 발견해 내고 마치 새가 바람을 치고 날아오르기 위해 그 바람을 이용하듯이 그 법칙들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칙들은 냉혹하기 그지없어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6)

현대 과학과 전쟁의 비극 등을 체험한 프로스트가 주지적, 객관적, 회의적이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죽음의 심연 속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끌고 들어가는 자연의 혼돈에 맞서서 어떤 저항을 시도한 것은 그의 시인적 자각에서 우러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프로스트의 현대성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2)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앞서 우리는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그 단절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 같은 단절의 양상이 인간 사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시의 분석을 통해 살

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간 개인의 고립상황과 맞물린 정신적 단절의 문제를 살펴보고 점점 그 범위를 넓혀 사회 최소 단위인 가정 내의 소외, 단절과 이웃간의 단절 양상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한계를 느낄 때 갈등을 하게 되며,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울타리만을 고집하고 남을 인정하지 못할 때 대립을 일으킨다. 「나는 밤과 벗하며 살아온 사람」(Acquainted with the Night)에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단절되어 있는 화자가 등장한다.

나는 밤과 벗하며 살아온 사람.

빛속을 걸어 나갔다가 빛속에 돌아 온 적도 있고
도시의 야경이 끝나는 곳 너머로 걸어 본 적도 있어.

가장 을씨년스러운 골목도 훑어보았지.

순찰 중인 야경꾼과 마주쳤을 땐

시선을 떨구어 버렸어, 해명하고 싶지 않았거든.

가만히 멈춰 서서 발걸음 소리를 죽여 보았지

멀리 다른 길에서 수많은 집을 건너

한 가닥 외침 소리가 들려 왔을 때 말이야,

하지만 나를 부르는 소리도, 보내는 인사도 아니더군;

더 먼 곳 까마득한 높이에서는

번쩍이는 시계 하나 하늘을 배경으로

시간이 틀리지도 맞지도 않다고 알리고 있었지.
나는 밤과 벗하며 살아온 사람.

I have been one acquainted with the night.
I have walked out in rain— and back in rain.
I have outwalked the furthest city light.

I have looked down the saddest city lane.
I have passed by the watchmen on his beat
And dropped my eyes, unwilling to explain.

I have stood still and stopped the sound of feet
When far away an interrupted cry
Came over houses from another street,

But not to call me back or say good-by;
And further still at an unearthly height,
One luminary clock against sky

Proclaimed the time was neither wrong nor right.
I have been one acquainted with the night.

(Frost 255)

이 시의 특이한 점을 들자면 그 배경이 프로스트의 시에서 찾아보기 드문 도시라는 점이다. 뉴잉글랜드의 황량한 겨울 풍경을 떠나 프로스트는 도시의 불빛이 채와 닿지 않는 인적 끊긴 교외의 어두운 밤거리로 눈을 돌린다. “시간이 틀리지도 맞지도 않다고 알고 있는”(Proclaimed the time was neither wrong nor right) “번쩍이는 시계”(One luminary clock)는 『황무지』(*The Waste Land*)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화자인 고독한 방랑자는 비오는 밤길을 걸으며 이곳 저곳 기웃거린다. 순찰중인 야경꾼이 지나가면 설명하기조차 귀찮아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어 버린다. 자청해서 대화를 단절한 화자의 태도에서 우리는 현대인의 권태와 소외를 읽어 낼 수 있다. 갈 곳 없어 해매는 그의 방황과 자아를 잃은 막연함, 그리고 부르는 소리도 잘 가라는 인사도 아닌 외침은 아무 데도 소속되지 못하고 떠도는 인간의 고립 상황을 잘 드러내 준다. 해롤드 와츠(Harold Watts)는 화자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자연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인간들—현대 사회나 전통적 문화—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시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71)고도 말한 바 있는데, 이 시가 전체적으로 저항(resistance)을 모티브로 삼았던 『서쪽으로 흐르는 개울』(*West-Running Brook*)에 실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와츠의 언급은 자연으로부터의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즉 “유기적인 우주가 궁극적으로 맞게 될 죽음이라는 최후, 그 어둠을 향해 가는 흐름을 거슬러 오르기 위해 화자가 스스로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어둠 속에 잠들기를 거부한 채 밤거리를 걷고 있는 것”이라는 패리니의 해석(246)과 일맥상통하는 바 있다.

밤의 이미지를 통하여 고립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 「노인의 겨울 밤」(*An Old Man's Winter Night*)을

들 수 있다. 나이들고 지친 농부에게는 문 밖의 모든 것이 그를 음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밖의 모든 것이 음산한 눈길로 그를 들여다보았다
텅 빈 방 안의 유리창살 위로 몰려 든,
점점이 박힌 별 모양의, 옅은 성에를 통해.

All out of the doors looked darkly in at him
Through the thin frost, almost in separate stars,
That gathers on the pane in empty rooms.

(Frost 108)

결국 노인은 자기가 한 행동과 그의 주변 환경에 놀라게 되는데 다만 음산하게 다가서는 밤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손에 쥔 등잔불, 지하실에서 쿵쿵 무서운 소리를 내며 올라오는 일, 난로 속에서 장작을 타게 하는 일 등 그의 일상의 일들을 마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하나의 의식처럼 행하는 것뿐이다(Brower 112).

노인이 혼자 지킬 수는 없는 일이다
집과 농장과 들을, 하지만 지킬 수만 있다면,
이렇게 겨울밤을 보내는 방법뿐이리라.

One aged man —one man— can't keep a house
A farm, a countryside, or if he can,
It's thus he does it of a winter night.

(Frost 108)

이 시는 노인의 최악의 상태인 고독을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버려진 곳들」(Desert Places)에서는 이런 고립 상황이 인간 내면의 문제까지 직시하게 만든다. 대지의 황량함은 인간의 고립감을 고조시키며, 땅을 메우는 눈으로 그 고립감은 점점 더 심해진다.

늘 외로웠지만, 이 외로움이
덜어지지 않으면 한 층 더 심해지리라.
표정도, 표현할 것도 없는
백지처럼 더욱 황량한 밤새 내린 저 눈.

And lonely as it is that loneliness
Will be more lonely ere it will be less
A blanker whiteness of benighted snow
With no expression, nothing to express.

(Frost 296)

세상은 어둠으로 밀폐된 하얀 공백의 종이와도 같지만 아무 것도

표현될 것도 표현할 것도 없다는 이 모습에서 자연의 공허함은 더욱 외롭게 나타난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영혼의 공백이다.

인간이 살지 않는 별들,
그 별들 사이의 허공은 두렵지 않다.
마음에 더욱 절실한 것은
내 안의 버려진 곳들에 대한 두려움일 뿐.

They cannot scare me with their empty spaces
Between stars-on stars where no human race is.
I have it in me so much nearer home
To scare myself with my own desert places.

(Frost 296)

외부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나 이제는 내부의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시인을 겁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음이 느껴지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도 역시 존재하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내면의 황량함 즉 도덕적 황폐함에 대한 인식이며, 이 마지막 연은 프로스트의 우울한 내적 인식과 외부 세계와의 대결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Frank 121). 현대를 윤리 부재의 시대라고 일컫듯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곧 윤리의식의 황폐함이다. 화자의 고립과 갈등은 그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절망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내부의 갈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산재해 있다. 특히 제 2 시집인 『보스턴의 북쪽』(*North of Boston*)에서는 소외와 단절, 고립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일련의 가정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집은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까지 대화의 단절로 인한 이해의 부족, 인간 소외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검은 농가」(*The Black Cottage*)에서는 남편은 독립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고 두 아들은 집을 떠나 도시로 가버린 채 늙은 여인만이 혼자 집을 지키다 죽고 만다. 「하인들의 하인」(*A Servant to Servants*)에서 한 여인은 남편과 그의 인부들 뒤치다꺼리에 지쳐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다. 「집 지키는 이」(*The Housekeeper*)에서는 결혼이라는 의식을 놓고 부부간의 의견 불일치로 아내는 집을 떠나 버리고, 「산골아낙」(*The Hill Wife*)에서 나이 어린 아내는 산속의 고독과 적막에 희생되어 버리고 만다. 이 일련의 가정 드라마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사랑과 효과적인 의사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가정의 파멸에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가정 드라마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평가받는 것이 「가족의 매장」(*Home Burial*)이다. 이 시는 한 때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악화로부터 오는 실존적 두려움(*existential fear*)과 정신병까지도 다루고 있다(Swennes 367). 어린 자식의 죽음이 부부 사이에 벽을 만들고 마침내는 가치관이 다른 두 인간을 유리시켜 버린다.

공통된 슬픔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굳게 결속시켰어야 할 아이의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Gerver 150)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아내는 슬픔에 갇혀 헤어나지를 못하고, 남편은 묻어야 할 슬픔을 삭이지 못하고 일상의 평화를 복구하는 일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아내가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태연해 보이는 이러한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감정을 공유할 수 없는 타인으로 비칠 뿐 아니라 비인간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난 저 창문에서 당신을 보았어요,
조그만 돌들이 공중으로 툭툭 정말, 정말 그렇게 튀어 올라
구덩이 옆에 쌓인 흙더미로 굴러 떨어지더군요.
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모르겠더군요, 당신인지.

'I saw you from that very window there,
Making the gravel leap and leap in air,
Leap up, like that, like that, and land so lightly
And roll back down the mound beside the hole.
I thought. Who is that man? I didn't know you!'

(Frost 53)

죽은 아이를 가족 공동 묘지에 묻고 돌아온 남편은 그 묘지의 마르지 않은 흙이 신발에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마치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 마냥 일상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슬픔의 빛이라고는 한 점도 찾을 수 없는 이런 남편의 태도를 아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은 자식의 무덤에서 나온 깨끗한 흙을
구두에 묻힌 채 앉아서 혼한 일상의
관심거리에 대해 말하더군요.
저기 바깥 입구의 벽에 그 삽을 세워 놓고서 말이에요.
똑똑히 보았다구요!

You could sit there with the stains on your shoes
Of the fresh earth from your own baby's grave
And talk about your everyday concerns.
You had stood the spade up against the wall
Outside there in the entry, for I saw it!

(Frost 54)

보다시피 아내의 시각에서 본 남편은 자식의 죽음에 일말의 동요도 보이지 않는 냉혈한이다. 하지만 남편의 성격을 그렇게 못박아 버리면 이 시의 초점이 두 인간 사이의 대화 단절보다는 인간성과 비인간성의 대치구도에 맞춰지게 된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일상에 매달리는 남편의 행동을 슬픔을 잊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이라고 해석하고, 이 긴장된 상황을 잘못된 의사 전달로 인해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지 못한 결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 시를 통해 단절된 인간의 관계를 그리고자 한 프로스트의 의도가 살아나게 된다.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아내는 무덤을 파고 일상의 일을 해 나가는 남편의 행동을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받아들인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같은 슬픔을 나누고 있지만 진정한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슬픔을 상

대방에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파국으로 향한다. 아내의 절망과 좌절은 남편이 자신과 같은 슬픔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지만 둘 사이의 장벽은 진실조차 제대로 전해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아내는 일반 사람들도 죽은 사람 묘지에 따라가긴 하지만 시신이 채 묻히기도 전에 마음은 죽은 사람에게서 떠나 살아있는 그 자신의 일상 생활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고독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관심도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함께 죽음까지 갈 수 있다지만 결국은 다 못 가고 말지요.
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사람은 몸쓸 병에 걸리면 외롭고,
죽을 때는 더욱 더 고독하게 죽는 거예요.
친구들은 무덤에 따라 가는 척 하지만,
그가 묻히기도 전에 마음은 뒤돌아서
삶과 산 사람,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일들로
서둘러 돌아가지요.

You couldn't care! The nearest friends can go
With anyone to death, comes so far short
They might as well not to try to go at all.
No, from the time when one is sick to death,
One is alone, and he dies more alone.
Friends make pretence of following to the grave,

But before one is in it, their minds are turned
And making the best of their way back to life
And living people, and things they understand.

(Frost 54)

죽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고독한 인간 조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는 프로스트의 다른 많은 극시들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의사전달, 진정한 대화의 부족에 주목하고 있다.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가운데도 어김없이 존재하는 소외와 고독, 피상적인 말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거리감, 현대인의 관계를 메마르게 하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초점이 된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야말로 프로스트의 현대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고 만다는 프로스트의 생각은 「꺼져라, 꺼져라—」(Out, Out—)의 한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시는 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실수로 자기의 손을 자르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는 — 그의 맥을 짚어본 사람이 깜짝 놀랐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심장에 귀를 기울였다.
작은 —더 작아지는— 사라져 버렸다!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 곳엔 세울 것이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이가 아니었기에, 그들의 일로 돌아갔다.

And then — the watcher at his pulse took fright.
No one believed. They listened at his heart.
Little — less — nothing! and that ended it.
No more to build on there. And they, since they
Were not the one dead, turned to their affairs.

(Frost 137)

소년은 이제 죽어버렸기에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고, 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일상 생활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자식의 죽음 후 곧 바로 무덤 파는 일에 착수했던 「가족의 매장」(Home Burial)의 남편이 상기되는 대목이다. 이미 벌어져 버린 일이고, 생명이 꺼져 버린 곳에서는 더 이상 일으켜 세울 것이 없기에 모두 다시 살아가기 위해 삶을 찾는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철저히 혼자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담장 고치기」(Mending Wall)에서는 이웃 사이에 돌담으로 표상되는 대화의 단절과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소외와 고독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마다 땅이 풀리는 봄이 되면 화자는 이웃과의 경계에 둘러쳐진 돌담장을 수리하기 위해 이웃 땅의 주인과 회합을 가진다. 화자의 생각엔 담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것인데 굳이 해마다 수고를 해가며 필요도 없는 담장을 수리하는 것이 바보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여전히 담장이 있어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이웃은 구석기 시대의 야만인처럼 양손에 돌을 들고 다가가서며 그의 아버지가 남겨준 경구를 되풀이할 뿐이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지요” 그리고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무너진 담장 위에 양손에 쥔 돌을 올려놓는다.

두 손에 돌을 단단히 틀어쥐고
 구석기 시대의 야만인처럼 위장하여 다가온다.
 마치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어둠이 숲과 나무 그림자의 어둠만은 아니었다.
 그는 부친에게서 들은 말을 어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나서 다행이라는 듯
 되풀이한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지요.”

Bringing a stone grasped firmly by the top
 In each hand, like an old-stone savage armed.
 He moves in darkness as it seems to me
 Not of woods only and the shade of trees
 He will not go behind his father's saying,
 And he likes having thought of it well
 He says it again,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Frost 34)

이들 두 남자의 충돌은 의식의 차이와 대화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담장 수선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의식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 독자가 유념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화자의 태도이다. 담장의 필요성을 고집하며 상호간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그의 고집스런 이웃이지만, 꾸밈없이 자연에 순응하며 울타리 없는 삶을 지향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화자 역시 과연 그가 말하는 대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진 않는다. 서로의 의식 차이를 확인하자마자 화자의 눈에

비친 이웃은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절대 영역 안으로 들어서는 안될 것 같은 무장한 야만인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입으로 대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이 화자 역시 자신과 의식이 틀린 인간과는 전혀 대화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프로스트 시작의 한가지 특징인 아이러니의 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진정한 교류가 부재함은 이미 앞장에서 살펴보았거니와 이 장에서는 인간의 상호 관계 속에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대화가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소외와 고립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초래된다고 역설한 프로스트의 견해를 시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다음 장에서는 이 단절 관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프로스트의 여러 시도를 통해 역경에 굴하지 않고 삶을 모색하는 그의 저항 정신을 짚어보기로 하겠다.

3. 단절을 넘어선 삶의 모색

프로스트가 현대인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단절과 소외의 문제를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풀어 보려 했음은 이미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가 이 단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고 있음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 작가들의 뚜렷한 특징은 현대 문명과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 안겨다 준 문제들, 말하자면 이상과 꿈의 포기, 회의주의, 불안, 절망, 상실감, 분열, 가치체계의 붕괴 등에 맞서 현대인의 삶을 재정립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문제들에 대한 프로스트의 해법은 현대문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아닌 “혼란에 대비한 일시적 지주”(a momentary stay against confusion)를 만드는, 혼돈에 휩쓸려 가지 않고 절제된 표현과 질서 의식을 통해 자신의 터전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노력에서 시작한다.

시가 만드는 형상. 그 것은 즐거움에서 시작하여 지혜로 끝맺는다. 그 것은 즐거움에서 시작하여, 충동으로 기울어졌다가, 첫줄이 놓여지는 방향을 따라서 온 좋은 사건들로 가득 찬 경로를 주유하여 삶을 해명하는 것으로 끝난다 — 어느 종파나 열혈 숭배자 무리들이 토대로 삼는 그런 대단한 깨우침일 필요 없이 단지 혼란에 대비하는 일시적인 지주로 끝맺음하는 것이다. (Frost 1962, 6)

이제껏 자신을 지탱해오던 자연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 없이 두려움 속에 내몰리게 되었지만, 인간은 결코 좌절하거나 고통받지마는 않는다. 대신 냉혹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점차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투쟁을 통해 신념과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을 가속화한다.

「장작더미」(The Wood-Pile)에서 누군가에 의해 장작더미가 숲 속에 그대로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다. 화자는 이 부패가 단순히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뽕뽕 열린 습지를 녹이기 위해 서서히 연

기 없이 타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쓸모 있는 난로 가에서 먼 저곳에 그것을 내버려두었다
천천히 연기 없이 타오르는 소멸의 불꽃으로
얼어붙은 높지를 최대한 녹이기 위해.

And leave it there far from a useful fireplace
To warm the frozen swamp as best it could
With the slow smokeless burning decay.

(Frost 102)

일견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찬 냉혹한 현실이지만 그 속엔 싹을 틔우기 위해 또아리를 또 다른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 세계에서만 죽음과 재생의 순환이 연속되는 것일까. 「서쪽으로 흐르는 개울」(West-Running Brook)에서 인간은 거슬러 오르는 작은 물줄기의 흐름을 통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깨닫는다. 이 개울은 이름 그대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다른 개울들과는 달리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도 본래의 물줄기에 역행하여 달리는 하얀 파도가 있다.

“그 반대를 말하자면, 저 하얀 파도를 일으키는
실개천을 보라, 어떻게 흐름을 거슬러 오르고 있는지.

.....

무로 흘러간다 —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그 자신 속의 기이한 저항만을 제외하고는,

.....

"Speaking of contraries, see how the brook
In that white wave runs counter to itself.

.....

That spends to nothingness — and unresisted
Save by some strange resistance in itself,

.....

(Frost 259)

이같이 본래의 물줄기와 파도의 대립을 통하여 화자는 모든 것이 무로 흘러가 버릴 이 세상에서 그것을 거부하며 삶을 향해 거슬러 오르는 인간의 정신의 투쟁을 본다. 즉 근원을 향해 역행하는 하얀 파도에서 인간 정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생의 모든 덧없음과 비극적인 무의미함에 대항하는 재창조를 위한 투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톰슨은 “흐르는 물과 근원을 향하는 몸짓에서 자연과 인간 본성에 대한 생과 사, 재생과 연속성의 끊임없는 순환을 볼 수 있다”(303)고 말한다. 이처럼 프로스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장애물과 한계점을 뛰어 넘으려는 인간의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지금까지 보면 인간은 자연에 의해 위축되고 또한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 하지만 이렇게 부과된 벽 내에서도 인간은 부여 받은 모든 재능을 이용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

을 인식하기도 한다. 「멀리도 깊이도 아닌」(Neither Out Far Nor In Deep)에는 제목처럼 더 이상 멀리 볼 수도 더 깊게 들여다 볼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모두 한 방향을 향해 육지에 등을 돌리고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선 인간들이 있다.

육지에는 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진실이 어디에 있건—
파도는 해변을 찾고
사람들은 바다를 응시한다.

그들은 멀리 보지도 못하며
깊이 보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바라봄에
방해가 된 것이 그 언제 있었던가?

The land may vary more;
But wherever the truth may be—
The water comes ashore,
And the people look the sea.

They cannot look out far
They cannot look in deep.
But when was that ever a bar
To any watch they keep?

(Frost 301)

바다를 보고선 인간들의 모습에서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미지의 목표를 향해 떠나고자하는 강한 의욕과 투지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바라보기만 하거나 기다리기만 하진 않는다. 직접 행동을 통해 극복해 낸다. 「길을 막고 쓰러진 나무에 대하여」(On a Tree Fallen Across the Road)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여행길에 폭풍우로 쓰러진 커다란 통나무가 길을 막고 있다.

그녀는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길이나 되는 눈 속에 발이 묶이도록,
도끼 없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궁리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장애가 소용없음을 알고 있다.
결코 우리의 최후 목표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기에.

She likes to halt us in our runner tracks,
And make us get down in a foot of snow
Debating what to do without an ax.
And yet she knows obstruction is in vain:
We will not be put off the final goal.

(Frost 238)

어떠한 자연의 장애물도 인간의 목표를 연기시키거나 단념케 하지는 못 하며, 인간에게는 이를 극복할 불굴의 용기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연이 보다 거센 얼굴로 다가온다 해도 인간은 끝내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습격」(The Onset)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겨울의 흰 눈은 죽음과도 같이 대지 위를 하얗게 덮어 버린다.

.....

난 하늘과 사방을 돌아보며 비틀거린다.
종말이 다가와 하던 일도 중지한 채
죽음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악에 대해 아무 손도 못쓰고 중요한 승리도 없고
마치 삶이 시작도 안된 것보다 더 아쉬운 느낌으로.

.....

I almost stumble looking up and round,
As one who overtaken by the end
Gives up his errand, and lets death descend
Upon him where he is, with nothing done
To evil, no important triumph won.

(Frost 226)

눈으로 표현된 악은 인간이 투쟁을 포기하도록 위협하고 유혹한다. 인간은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대로 생을 끝내버릴 것 같이 비틀거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는 잠시만 흔들릴 뿐 끝내 저항한다. 왜냐하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고통과 쓰라림은 잠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기억들은 내 편에 선다.
 겨울의 죽음 제아무리 땅을 공격해도
 번번이 실패했음을 나는 안다.
 오래 오래 눈이 내려서
 단풍나무, 자작나무, 참나무에 키만큼 쌓여도
 새의 은빛 노래는 어찌지 못하리라.

Yet all the precedent is on my side:
 I know that winter death has never tried
 The earth but it has failed: the snow may heap
 In long storms an undrifted four feet deep
 As measured against maple, birch, and oak,
 It cannot check the peeper's silver croak;
 (Frost 226)

인생을 살다보면 머리 없는 말을 탄 기수처럼 막막하여 갈 곳을 모르는 채 방황도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절망을 넘어 희망과 용기를 갖는 것은 아직 펼쳐 보지도 못한 생의 계획이 항시 있기 때문이다. 용케는 프로스트가 종교적 신앙을 거절한 이유도 현실을 직면하는 개인적 용기를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생존하려는 용기야말로 예견할 수 없는 우주 속에서의 생존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53 -164).

지금까지 프로스트의 시 세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서의 단절과 갈등, 그리고 용기를 갖고 단절의 상

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비록 아름다웠던 자연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올 때는 두려움도 느끼고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결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인간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무상함 속에서도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고, 둘러싸고 있는 한계 내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투쟁하기 때문이다. 이는 프로스트가 지닌 생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 있으며, 그가 인간에 대해 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인간사회 속의 단절 관계에서도 그는 단순히 문제제기에서 끝내지 않는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가정과 심리적, 상황적 대립관계를 연출하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결국은 상호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결혼의 유대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내의 유대 관계 모두를 생산적인 애착심으로 본 프로스트는 평소에도 “사람에게서 외부와 이어진 연결고리들을 모두 빼버린다면 도대체 그를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인간은 그 모든 연결고리들이 한 점에서 묶인 아주 작은 매듭, 너무 작아서 그 스스로는 구별해내지도 못하는 그런 작은 매듭에 불과하다”(Latham 119)고 말하며 기록장에 “연대(connections)와 사회 집단(community)은 사랑의 기초이자 그 생산물”(Parini 322 재인용)이라고 쓰고 있다.

「이른 봄의 두 뜨내기 일꾼」(Two Tramps in Mud Time)에서의 화자도 가치관이 다른 타인과의 조우에서 자기 이해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고 있다. 장작 패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며 시간을 즐기고 있는 화자 앞에 난데없이 두 사람의 뜨내기가 나타나 자신들의 돈벌이를 화자가 즐길 권리가 없다는 듯이 지켜본다. 그들의 출현으로 화자는 자신이 얼마나 이 일을 즐기고 있는지를

자각한다.

내가 일을 가장 즐기고 있을 때
나타난 이 둘이 그 일을 더 즐기게 만든다
그들이 청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The time when most I love my task
These two must make me love it more
By coming with what they came to ask.

(Frost 276)

하지만 화자는 타인의 요구와 필요에 무신경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일이 즐거운 만큼 그 일꾼들에게 그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랑과 필요가 겨루는 일에서는 필요가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이해에서
인간관계의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생겨 나는 것이다.

나의 권리는 사랑이겠지만 그들의 권리는 필요였다.
그 둘이 똑 같이 존재하는 곳에선
그들의 것이 더 정당한 권리임을 인정한다.

My right might be love but theirs was need.
And where the two exist in twain

Theirs was the better right —agreed.

(Frost 277)

인간의 진보란 자기 자신을 알고 정복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며, 좀 더 성숙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화자는 타인을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양보할 마음을 먹고, 스스로는 노동이란 사랑과 필요가 합쳐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결론 내린다.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포용은 「고용인의 죽음」(The Death of the Hired Ma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시에서 주인공은 메리와 워렌 부부의 고용인이었던 사일러스로 주인 부부에게는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다. 가장 바쁜 건초기가 되면 주머니 돈에 욕심이 나 뛰쳐나갔다가는 돈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곤 하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화가 난 남편은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데, 이 상황까지는 자신의 이해 관계로 판단하여 거부하는 단절의 관계가 여실하다. 여기서 한 걸음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인물이 아내인 메리이다. 메리는 더 이상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도 없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일도 없는, 죽음 앞에 선 사일러스를 동정해주라고 말한다.

로위의 집에서 올라 왔을 때 여기 헛간의 문에
웅크리고 선잠이 든 그를 발견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왠지 무섭기도 하고...

.....

공지를 갖고 되돌아 볼 일도
희망을 갖고 기대해 볼 일도 없는.

.....

사일러스를 좀 가엾게 여겨보세요.

When I came up from Rowe's I found him here,
Huddled against the barn-door fast asleep,
A miserable sight, and frightening, too-

.....

And nothing to look back to with pride,
And nothing to look forward to with hope.

.....

But have some pity on Silas.

(Frost 35-39)

사일러스는 나름대로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일꾼이다. 그는 젊은 대학생에게 자신이 공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초 쌓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베풀기도 하며 그 자신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코 잘사는 그의 형님에게 도움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오직 자기를 받아들여줄 사람들에게 위로 받으며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공지를 지닌 채 따뜻한 난로 곁에서 죽기를 원하며 돌아온 것이다. 결국 워렌은 메리에게 설복 당하여 사일러스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일러스가 이들의 환영도 못 받은 채 죽은 후였다.

몽고메리(Marion Montgomery)는 여기서 인간 사이의 벽은 상

호 이해와 존경을 위한 골격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47). 즉 프로스트에게 있어 모든 대립은 상호 이해와 존경으로 가야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 단절되어 고립된 개인은 그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이같은 자기 이해는 주위 사람들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하는 시발점이 되며, 이 이해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어 이 세상이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프로스트는 시 속에서 단절된 관계를 여러 양상으로 그려내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임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 단절된 상황은 현대인을 잠식하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상호이해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된 무대장치임에 다름 아니다. 현대라는 격류에 저항하며, 흔들리는 인간관계를 지탱해줄 일시적인 지주로서 프로스트는 역경과 적대적 환경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성실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인간 전체에 대한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

III.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를 분석하여, 그 속에 나타난 단절이라는 주제의 의미와 이러한 단절의 양상이 그의 시 속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살핀 다음, 이러한 단절된 관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수용을 통해 삶을 모색하려 한 그의 시적 노력을 탐색해 보았다.

우선 자연과의 융합을 강조하여 무조건적인 상호신뢰를 전제로 했던 낭만주의에서의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와는 달리 인간사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두렵기까지 한 자연의 모습과 그런 자연과 단절되어 그만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의도」(Design), 「어느 날 태평양 연안에서」(Once by the Pacific), 「내 창가의 나무」(Tree at My Window), 「최대한의 것」(The Most of It), 「시골의 것들을 시로 쓸 필요」(The Need of being Versed in Country Things), 「영역 찾기」(Range Finding) 등의 시를 통해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고립되고 소외된 모습으로 나타난 인간 군상들, 개인과 가정, 이웃에 이르기까지 대립과 갈등, 소외가 있음을 「나는 밤을 잘 알지요」(Acquainted with the Night), 「노인의 겨울밤」(An Old Man's Winter Night), 「버려진 곳들」(Desert Places), 「가족의 매장」(Home Burial), 「꺼져라, 꺼져라—」(Out, Out—), 「담장 고치기」(Mending Wall)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프로스트가 소외와 단절이라는 현대적 주제의 문제제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내는 하나의 버팀목으로 인간의 용기와 성실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제시하고

있음을 「장작더미」(The Wood-Pile), 「서쪽으로 흐르는 개울」(West Running Brook), 「멀리도 깊이도 아닌」(Neither Out Far Nor In Deep), 「길을 막고 쓰러진 나무에 대하여」(On a Tree Fallen Across the Road), 「습격」(The Onset), 「이른 봄의 두 뜨내기 일꾼」(Two Tramps in Mud Time), 「고용인의 죽음」(The Death of the Hired Man)을 통해 알아보았다.

프로스트는 인간은 삶에서 느끼는 모순이나 갈등을 용기와 의지로 극복할 수 있으며, 또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비록 인간이 생의 비극에 직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프로스트는 그것을 불가피한 좌절이나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는 인생의 비극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줄 알며, 삶에 대담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 볼 줄 아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자기 존재를 회의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프로스트의 시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단절”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그의 시를 보다 현대적 시각에서 해석해 보았고, “단절”이라는 현대의 위기에 봉착하여 그가 생존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용기와 사랑을 통해 프로스트가 한 시대를 이끈 시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Works Cited

- Abrams, M. H. ed.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vol.2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9.
- Barry, Elaine. *Robert Frost :Modern Literary Monography*. New York: Frederic Ungar, 1973.
- Brower, Reuben A. *The Poetry of Robert Frost: Constellation of Intention*. New York: Oxford UP, 1963.
- Burnshaw, Stanley. *Robert Frost Himself*. New York: G. Braziller, 1986.
- Frank, Albert J. " 'Nothing That Is': A Study of Robert Frost's 'Desert Places'" *Frost: Centennial Essays*. ed. Jac Tharpe. Jackson: UP of Mississippi, 1978.
- Frost, Robert. "The Figure A Poem Makes." *Complete Poems of Robert Frost*.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2.
- . *The Poetry of Robert Frost*. ed. E. C. Lathem.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79.
- Gerver, Philip L. *Robert Frost*, New York: Twayne, 1966.
- Griffith, Clark. "Frost and the American View of Nature." *American Quarterly* XX (1968): 20-38.
- Juhnke, Anna K. "Religion in Robert Frost's Poetry: The Plan for Self Possession." *American Literature* XXXVI (1964): 153-164.

- Lathem, Edward Connery, ed. *Interviews with Robert Fros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 Lynen, John F. *The Pastoral Art of Robert Frost*.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67.
- Montgomery, Marion. "Robert Frost and His Use of Barriers: Man vs. Nature toward Go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 Nitche, George. *Human Values in Poetry of Robert Frost*. Durham: Duke UP, 1960.
- Parini, Jay. *Robert Frost : A Lif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99.
- Perkins, David. *A History of Modern Poetry, From the 1890s to the High Modernist Mode*. Cambridge: Harvard UP, 1979.
- Poirier, Richard. *A Work of Knowing*, London: Oxford UP, 1977.
- Squires, Radcliffe. *The Major Themes of Robert Frost*. Ann Arbor: UP of Michigan, 1963.
- Thompson, Lawrence. *Robert Frost: The Years of Triumph*.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70.
- Watts, Harold H. "Robert Frost and the Interrupted Dialogue." *American Literature* (March 1950): 67-81.

**A Study on the Theme of Rupture
in Robert Frost's Poetry**

Seoh, Chae-Rya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rupture as a significant subject in Robert Frost's poetry and to trace how this theme is embodied in each poem. Throughout the process it will be confirmed that his intention to depict the rupture in relationships is not just rightly substantiated but also leads to the search for the ultimate way out and the survival in this depressing isolation by acceptance as well as resistance.

In the first part of the thesis, the meaning of rupture in Frost's world is examin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tie which Wordsworth kept with his nature. In fact, Frost could not entirely escape from the noble Wordsworthian voice and the vision it asserted, but one sign of Frost's strength is that though he understood this voice so well he did not succumb to

it. Frost seizes on the dramatic clash made by differences of things in question — for example man and nature — which are usually blurred into a cosmic harmony in the world of Wordsworth. This brings out a concrete barrier, unbridged rupture in relationships found in Frost's poetry.

In the second part, the aspects of rupture shown in his poems are traced in two respective categories, man vs. nature and man vs. man. Apart from the relationships in Romantic poetry which emphasizes the unconditional trust in benevolent n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in Frost's poetry is rather hard and disconnected, because his nature is terrifying and mercilessly indifferent. Frost tries to depict the aloneness of man who has to face the rupture in his relationship with nature, in "Storm Fear", "Once by the Pacific", "Tree at My Window", "The Most of It" and "Design". This rupture is found in human relationships as well in the outfit of isolation and lack of understanding. "Acquainted with the Night", "An Old Man's Winter Night", "Desert Places", several domestic poems including "Home Burial", "Out, Out—" and "Mending Wall" serve as good examples.

In the last par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ood-Pile", "West Running Brook", "Neither out Far Nor in Deep", "On a Tree Fallen Across the Road", "The Onset", "Two Tramps in Mud Time" and "The Death of the Hired Man", it is examined and confirmed that Frost's intention to suggest the rupture in relationships as a problematic modern subject is extended to

moulding an answer to the problem – courage, integrity, love and understanding, to say as "a momentary stay against confusion".

Hopefully, this thesis focused on one of modern themes may serve a stepping stone to reinterpret Frost's poetry in fuller sense of modernist's viewpoint.